

“U-리그 활성화 위해 행정업무도 해야죠”

대학 사령탑 연맹 업무까지 도맡아
“노하우 쌓이면 후배 감독들과 공유”

11월 23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챔피언 결정전 3차전을 끝으로 2019 KUSF 대학아이스하키 U-리그가 끝났다. 2년 차를 맞은 KUSF 대학아이스하키 U-리그는 연세대가 2시즌 연속 우승컵을 거머쥐면서 마무리됐다. 이번 시즌은 전체적으로 리그와 경기력 수준이 2018시즌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얻기까지는 감독들의 지속적인 노력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일부 감독들은 팀 감독직과 함께 리그 주관 단체인 한국대학아이스하키연맹(KUIF)의 행정직까지 맡아 두 배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팀을 플레이오프까지 이끌면서 동시에 KUIF의 행정감사 업무를 맡았던 김영조 광운대학교 감독을 만나보았다.

소속팀인 광운대와 KUIF를 모두 책임져야 했던 김영조 감독은 “리그 활성화를 위해 소속팀 감독들이 첫 시즌부터 행정직을 같이 맡기로 결의했다”며 광운대 감독과 KUIF 행정감사 겸임 배경을 밝혔다.

김 감독은 이어 “팀 선수들을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경향이 쌓이면 리그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오랫동안 후배 감독들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연세대의 무패 기록이 2시즌 연속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리그 발전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량이 출중한 신입생 선수들이 각 학

교마다 등장하면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사실 대부분 팀들에서 1학년 선수들의 전력이 핵심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김 감독은 “성숙한 1학년 선수들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시즌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즌의 모습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아이스하키팀에 대해서는 “대표팀에서 실력있는 젊은 대학생 선수들을 많이 차출해 시간을 갖고 키우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다”며 소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앞으로 KUIF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와의 유대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아이스하키 U-리그는 KUSF 주최로 운영되고 있다.

김 감독은 “U-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리그에 대해 더욱 많은 피드백을 제공해주시면 좋겠다”라고 KUSF에 요청했다.

“연맹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더 나은 환경을 위해 KUSF 차원의 예산 지원도 늘어나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감독은 마지막으로 다가올 2020시즌에 대해 “팀에서도 동계 훈련을 통해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KUIF에서도 모든 팀 감독들과 협업체 U-리그가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전현우 명예기자(명지대 정치외교 전공) martyjin@gmail.com



광운대학교 김영조(위) 감독.

사진제공 | 김영조 감독

‘몰락한 명가’ AC 밀란 언제쯤 부활 가능할까

AC 밀란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탈리아 축구리그 세리에A의 전반기 일정이 끝난 지금, AC 밀란의 순위는 11위이다. 거둔 승리(6)보다 패배한 경기(8)가 더 많고, 득점보다 실점이 8점이나 더 많은 상황이다.

심지어 최근 경기인 아탈란타와의 세리에A 17라운드 경기에서는 5대0으로 굴욕적인 대패를 기록했다. 5점차 패배는 구단 역사상 세리에A 최다 실점 패배 타이 기록에 해당한다.

밀란은 세리에A에서 18번의 스쿠데토를 차지하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많은 7회의 우승을 한 대표적인 명문구단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암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써 여섯 시즌째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다. 또한 4년 동안 밀란의 레전드인 젤사르 가투소를 비롯해 4명의 감독이 경질되었다. 신임 감독인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 부임 후에도 10경기에서 3승 밖에 거두지 못하며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비도 수비지만 무뎌진 공격력이 아쉽다. 밀란은 17경기에서 16득점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지난 시즌 리그 22골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던 피올리 감독의 부진이 빼아프다. 그는 이번 시즌 리그 17경기에서 4득점에 머물고 있다.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 수소와 찰하노글루 역시 제 몫을 못해주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 이적시장을 앞두고 밀란의 최우선 과제는 공격력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밀란은 언제쯤 부활할 수 있을까.

김주환 명예기자(국민대 KIBS 전공) joo971017@naver.com

‘티키타카’로 세계 호령…바르샤의 추억도 저문다

2010년대 축구계 지배한 단어

2010년대 축구계를 지배한 단어는 단연 ‘티키타카’였다. 점유율이라는 지표가 갖는 의미가 대두됐고, 공을 가장 잘 소유하는 팀이 가장 강한 팀이었다. FC바르셀로나는 그런 시대를 만든 클럽이었다.

2010년 피파 발롱도르 시상식, 3인 최종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모두 같은 클럽 소속 선수들이었다.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 당대 최고의 팀이었던 바르셀로나

의 주축 선수들이었다. 발롱도르 3인 최종 후보가 모두 같은 클럽 선수로 채워진 것은 AC 밀란의 마르코 판 바스텐, 프랑크 바레시, 프랑크 레이카르트가 후보에 오른 1989년 이후 처음이었다. 바르셀로나가 세계 축구를 지배했다는 반증이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르셀로나의 중심에는 펩 과르디올라가 있었다. 2008년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취임한 과르디올라는 헤성처럼 등장해 유럽을 뒤흔들었다. 2009년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포함해 6개의 타이틀을

파냈고, 2012년 감독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14개의 우승을 기록했다.

과르디올라는 요한 크루이프가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있던 1990년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해 1992년 ‘드림팀’의 일원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일궈낸 바르셀로나의 레전드였다. 감독 과르디올라의 축구는 스승 크루이프의 것을 계승하면서 상대에게 허용하는 빈틈을 최소화한 것이었다.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가져다온 가장 큰 혁신은 ‘가짜 공격수’ 개념이었다. 과르디올라는 주로 측면 공격수로 활약하던 메시를 중앙 공격수 포지션에 옮겨 놓는 이색적인 시도를 했다. 중앙으로 이동한 메시

는 기존의 공격수처럼 박스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을 자유롭게 활보했다.

이 개념은 바르셀로나에 국한되지 않고 유로 2012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 대표팀에까지 전해졌다.

바르셀로나는 선수의 힘과 스피드보다는 기술과 경기 지능을 중요시한다. 요한 크루이프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유소년 시스템 ‘라마시아’를 토대로 자신들의 축구를 펼쳐 나가는 구단이다. 그들은 축구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그 아름다움은 2010년대를 함께한 많은 축구 팬들의 추억 속에 간직될 것이다. 서경원 명예기자(성명대 생명과학 전공) yalsir791@naver.com

7분만에 최고의 밥맛! 업소용 전기솥밥기계 ^{NEW} IH-디지털아궁이

하루 렌탈료 6,000원!!! 평생무상AS시스템



●●● 인덕션 밥 조리기 업계 최초 압력식 초벌 기능 탑재

인덕션 밥 조리기 전문업체 (주)가죽에 에프에스가 세련된 디자인과 소비자 중심의 설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를 출시했다. “디지털 아궁이” 하면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먼저 알아봐 주시는 기계로 밥맛부터 품질, AS까지 뭐하나 빠짐없는 기계로 정평이 나있다. 밥맛은 시골 가마솥에서 갓 지은 듯한 구수한 가마솥 밥맛을 내기 위해 압력 방식을 선택했으며 자동 온도 센서로 버튼만 누르면 1~4인분까지 자동으로 설정되어 완성된다. 또한 완성된 밥은 20분간 밥맛의 변질 없이 자동으로 보온이 되어 단체손님, 예약손님 등에 맞게 나갈 수 있다.

●●●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특징

이번 신제품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는 초벌 기능을 탑재했다. 주식회사 가죽에에프에스는 창립 후 10년 동안 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초벌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연구 개발했다. 초벌 기능은 솥에 여유만 있으면 적은 구수에서도 많은 양의 밥을 해내는 기능이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많은 구수의 기계를 사자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12구의 기계에서 점심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200그릇 정도 된다. 2019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의 초벌 기능은 손님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전에 초벌 기능으로 밥을 해놓고 손님이 방문했을 때 3분만 데우기 기능을 활용하면 처음에 한 밥과 같은 밥을 내놓을 수 있다. 11시에 한 밥을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시에 데워도 처음한 밥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시간, 노동력

모두를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

●● 매출 신장에 일등공신



디지털아궁이로 매출 두 배 달성한 울산의 만만식당 사장님 말씀 “오픈하고 나서 점심 때 손님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디지털아궁이를 만났습니다. 마지막 도전으로 생각하고 솥밥 기계를 들여놓고 솥밥에 맞게 메뉴도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시작을 하였는데 점 차 손님이 늘어 처음에는 8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24구로 점심에 손님이 줄서 있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궁이는 희망입니다.”라고 말했다.

●●●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간편구입 방법

제품모델은 8구, 10구, 12구, 15구, 16구, 20구, 25구 등 7가지 모델로 구비돼 있으며 업소에 맞게 구매하시면 되고 구매전 전화로 시연 예약을 하면 전문 매니저가 방문해서 밥맛, 기계의 사용법, 시스템 이해, 구매조건을 들어본 후 설치예약을 하면 된다. 시연 시 대폭 할인이 있으며 설치 후 홍보를 위한 배너, 현수막, 온라인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런칭기념 전액할부, 36개월지리할부 등도 있으며 빌려 쓰는 렌탈시스템도 있다.

매출상승 보장!



스마트 디지털 아궁이 문의 1544-7871